

9월 20일(월) / 미 5-7

▶ 내용요약 : 미가 5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평강이 되실 것이다. 한편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변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7장에서 미가는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5장)
“()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에 있느니라”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한 소망과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자 회복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9월 23일(목) / 습 1-3

▶ 내용요약 : 스바냐 1장에서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한편 2장에서는 이웃 나라들(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앗수르)을 향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자를 칭찬하고 억압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3장)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생각하기 :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보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

9월 26일(일) / 속 5-8

▶ 내용요약 : 스가랴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한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전히 퍼져있는 죄, 특별히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처참한 상태를 고발하셨다. 이어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에 나타날 새로운 소망과 그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한편 7장에서

9월 21일(화) / 나 1-3

▶ 내용요약 : 나훔 1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엘고스 출신 나훔에게 임했다. 나훔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유다를 향해서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장에서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했다.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애를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물이 모인 못처럼 번성했던 니느웨는 모두 흩어진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하여 피의 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특별히 과거에 멸망했던 성읍인 노아몬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파멸과 심판의 길로 행하는 니느웨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다.

▶ 질문 : 나훔은 누구의 멸망에 대해 경고하며 예언했는가? (1장)
▶ 생각하기 :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더 깊은 묵상을 위해 요한복음 3장을 읽으라).

9월 24일(금) / 학 1-2

▶ 내용요약 : 학개 1장에서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민족의 회복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백성들은 큰 실망감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을 격려하셨고,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공사에 착수하였다.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에게 복과 소망을 약속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 것이다.

▶ 질문 :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것은? (1장)
▶ 생각하기 : 당시 성전 공사는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국권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적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다. 또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마음 또한 매우 연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제 2, 제 3의 학개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 지적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분노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득하여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9월 22일(수) / 합 1-3

▶ 내용요약 :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였다. 먼저 하박국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듯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응답하셨다. 그러자 하박국은 이방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항의하듯 질문했다.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나타내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셨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은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2장)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은 그의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생각하기 : 하박국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에 하박국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자.

9월 25일(토) / 속 1-4

▶ 내용요약 : 스가랴 1장에서 다리오 왕 때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빨간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과 네 빨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 선포하셨다.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벽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3장에서 스가라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대적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웃은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히셨다. 4장에서는 순금 동전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친히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셨다.

▶ 질문 : 네 번째 환상에서 천사 앞에 선 사람은? (3장)
▶ 생각하기 : 스가라는 학개와 마찬가지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처럼 실의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소망과 위로를 주어야 한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7장)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하고 ()하였거니와 그 ()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나”

▶ 생각하기 :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신앙적 활동과 훈련(기도, 금식, 봉사 등)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삶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